

제목		국문	당뇨병 환자의 구강보건 실태조사		
		영문	A study on the oral health status in diabetic patients		
저자 및 소속	국문	김남희 ¹ , 윤태영, 최봉근, 최종명, 박순영, 유동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¹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Nam Hee Kim ¹ , Tai Young Yoon, Bong Keun Choe, Joong Myung Choi, Soon Young Park, Dong Joon Lew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¹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이용]	발표자	윤태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퇴행성 질환의 하나로 그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약 1억 2천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 2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생활양식의 서구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매년 약 8,000명 정도가 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당뇨병은 일단 발생하면 완치가 불가능하며 관리를 잘 못할 경우 저혈당증, 시력장애, 신장 및 신경질환, 피부감염, 심장 및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게 되고, 대부분은 이러한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세심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평생관리 대상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p> <p>당뇨병에 있어 질병 경과의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점과 뚜렷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평생동안 치료와 자기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만성 질환에서처럼 생물학적 요인보다는 건강관련 행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강화는 당뇨병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되어 왔다.</p> <p>이와 같이 당뇨병의 관리에는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련 행위와 철저한 자기관리 측면,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자기관리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구강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구강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p> <p>국가적으로 구강보건 관리를 위해서는 구강보건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에 의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며, 예방적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집단에 대한 구강보건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 보고가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특정 인구집단 별 구강관리 실태 및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당뇨병과 같은 특정 질환 인구에 대한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p> <p>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의 구강관리 실태 파악을 기초로 당뇨환자 자기관리 교육에 있어 구강관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1. 연구대상</p> <p>서울소재 세 곳의 대학병원에서 당뇨병 유병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당뇨병 치료를 위해 입원 또는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p> <p>2. 조사기간 및 연구방법</p> <p>조사는 2001년 3월 12일부터 3월 30일 까지 훈련된 두 명의 조사원에 의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총 200개의 설문지 중</p>					

끝까지 응답한 179 명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당뇨병에 대한 자기관리 정도, 당뇨 및 구강관리 교육 경험도, 잇솔질 횟수 및 시기, 잇솔질 외 구강위생 관리 태도에 관한 설문을 포함하여 총 57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package program 을 이용하여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OVA 로 분석하였다.

3. 결과

1. 당뇨병 환자는 구강 내 통증이나 이상을 생겼을 경우 '당뇨담당 주치의에게 상담' 을 한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혼자 해결' 하는 경우(80.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당뇨병을 앓은 이후 치과진료 경험은 7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동네치과 병(의)원' 을 이용(71.1%)하며 '발치' (74.4%) 등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3 개월 간 구강 내 자각 통증 유무와 치과 치료 필요성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4. 최근 3 개월 간 구강 내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과 치과 치료 필요성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혀나 뺨, 입천장이 아프다' 를 제외한 나머지 증상에 있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5.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아프지만 치과 가기 겁나서' 79.8%, '별로 아프지 않아서' 64.8%, '당뇨치료와는 상관이 없어서' 가 63.6%, '당뇨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 58.7% 등으로 나타났다.

6. 유병기간에 따른 잇솔질 횟수와 이 닦는 시기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7. 자기관리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청결관리(목욕)' 가 84.8%로 '구강위생관리(잇솔질)' 6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발 관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 잇솔질 횟수 및 이를 닦는 시기에 따라 자기관리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9. 당뇨교실 교육 경험에 따른 구강위생 관리 태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구강보건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구강위생관리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11. 당뇨교실 교육 경험에 비해서 구강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구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경로에 대한 응답으로 당뇨주치의 및 당뇨교실을 통한 경우가 8.9%로 치과 의사 34.1%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당뇨지식 습득 경로에서 의사가 91.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구강정보 습득에 있어 치과 의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소 당뇨병 환자의 전반적인 관리 및 상담을 하고 있는 당뇨 전문인력에 의한 구강정보의 습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뇨병 환자도 자신의 구강에 대한 문제는 당뇨병과 상관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를 시행한 세 곳이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동일 병원에서의 당뇨진료와

치과진료와의 상호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뇨병 환자의 치과진료에 있어서 당뇨담당 진료부와 치과진료부와의 상호 진료체계와 의뢰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당뇨병 환자들의 구강진료를 위한 치과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내용에 있어 발치 등의 주의를 요하는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한 점에서는 동네치과 병(의)원에서도 당뇨담당 주치의와의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들의 병력조사, 당뇨수치 등 당뇨병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치과진료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 내 발생하는 증상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불명확한 것은 구강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고 구치나 구강건조 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지나쳐 버리는 경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당뇨교실을 통한 환자교육에 있어 구강보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것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과 구강 보건교육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차후 지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